

민중의 삶 새긴 판화 저장 3인 한자리서 만난다



오윤 작 '탄생'



▶도미야마 다에코 작 '탄생의 레퀴엠'

◀케테 콜비츠 작 '전쟁'(戰死)

미리 본 광주시립미술관 '세계민중 판화 전(10일~8월 12일)

'예술가면 무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당 만큼 울려주고 감동시켜보라.'(오윤)

'구제 받을 길 없는 이들, 상담도 변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나의 예술이 한가닥 책임과 역할을 담당했으면 한다.'(케테 콜비츠)

'예술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생각해 온 끝에 깊은 슬픔과 만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도미야마 다에코)

전시장 벽에 적힌 세 작가의 육성은 그들의 강렬한 판화 작품 속에 생생히 살아 있었다. 10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하는 2018 민주·인권·평화 '세계 민중 판화'(8월12일까지)전은 반전 평화 예술가 케테 콜비츠,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역사적 아픔을 형상화한 도미야마 다에코, 민중들의 삶과 신명을 표현한 민중미술작가 오윤의 판화 작품 50여점을 한 자리에 모은 의미있는 전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13년부터 5·18재단과 함께 5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민주·인권·평화 전을 열고 있다.

9월 미리 찾은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케테 콜비츠(1867~1945·독일)의 작품이다. 커다란 벽면에 단 한점 걸린, 20cm에 불과한 '자화상'은 어떤 작품보다 인상적이다. 깊은 눈매와 짙은 입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들여다보는 듯, 그림을 보는 관람객을 응시하는 듯한 시선 앞에서 좀처럼 발걸음을 떼기 어렵다.

생명에 대한 존엄과 가치,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담은 그녀는 1914년 세계 1차 대전에서 둘째 아들을, 2차 대전에서 손자를 잃은 비극을 겪는다. 작품 '전쟁'(戰死)는 가족의

80년 광주·평화의 소중함 담긴

케테 콜비츠·도미야마 다에코

오윤 대표작 50점 선 보여

죽음을 알게 된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애달프게 다가오며 재촉되는 아이를 안아올리는 작품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히려 슬픔을 자아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과부', '사람들', '어머니들' 등 전쟁의 희생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아픔, 전쟁에 대한 공포를 강렬하게 표현한 '전쟁' 목판화 연작 7점을 모두 만날 수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이 그림들은 마땅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보시오. 우리가 모두 겪은 이 참담한 과거를"이라 말했다. 전시작 15점은 모두 일본 사카미 미술관 소장작이다.

도미야마 다에코(1921~·일본) 작품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을 담은 10점으로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한정중결색전 46점 가운데 선별했다.

'재일동포 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서승교수의 면회를 위해 1971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도미야마 다에코는 이후 한국 양심수 구명 운동에 적극 나섰다. 김지하 시인의 시를 테마로 '석판화' 시리즈를 제작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혼의 의미를 담아 '바다의 기억' 작업을 진행했던 그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다.



케테 콜비츠 작 '자화상'

이번 전시작은 1980년 5월 광주 소식을 접하고 전 세계에 이를 알리기 위해 6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작업했던 작품들이다. '자유 광주'는 손을 하늘로 뻗어 환희를 표현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통해 광주의 해방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유 민주' 등의 플래카드와 다채로운 표정의 수백개 얼굴을 함께 등장시킨 '시민의 힘'도 인상적이다. 그밖에 '광주의 피에타'와 '광주의 레퀴엠'은 단순한 터치와 강렬한 색감으로 광주의 비극을 표현하고 있다.

'갈노래', '도깨비' 등 오윤(1946~1986·한국)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신명과 해학이 함께한다. "그는 바람처럼 갔으니가 언제고 바람처럼 다시 올 것이다"는 묘비명의 일부처럼 작품

으로 다시 살아나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을 만난다. '갯마을'의 소설가 오영수의 아들로 서울대 미대에서 조소를 전공한 오윤은 40세로 요절했지만 민중들의 한과 신명을 간결한 판화로 표현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 작가다.

대표작 '갈노래' 등 강렬한 작품들도 인상적이지만 이번 전시에서 마음이 가는 건 민중들의 삶을 유쾌하게 잡아낸 판화들이다. 깔아놓은 명석과 막걸리, 간단한 안주를 놓고 내기에 열중한 '웃놀이', 김치를 담은 여자들과 한 입 먹으려 기다리는 아이의 표정이 눈길을 끄는 '김장', '시를 지진 잔주름살 환히 펴고요 형님, 우리질 것 놓시오. 동동동 당동'이라는 글씨와 결판된 판을 벌인 두 사내의 흡사한 얼굴이 일품인 작품, 춤추는 호랑이의 익살스런 동작이 유쾌한 '무호도' 등이 눈길을 끈다.

작가는 민중의 고단한 삶에도 위로의 시선을 건넨다. 옷통 벗은 한 남자의 뒷모습에서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피로'를 비롯해 아들을 깨우는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 없는 '애비'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그가 작업할 때 사용한 조각도와 동화책 '메아리 소년'의 유쾌한 표지화를 비롯해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강은교의 '붉은 강', 송기숙의 '암태도', 김지하의 '오작' 등 책 표지 그림은 또 하나의 작품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전시를 기획한 임종영 학에서는 "이번 전시에서는 케테 콜비츠의 '전쟁' 연작을 모두 만날 수 있으며 여타 민중미술작가들과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민중들의 삶과 신명을 다룬 오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막식은 10일 오후 5시, 문의 062-613-7143.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시, 음악으로 말하다'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15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2018년 새롭게 시작한 기획공연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세 번째 공연이 오는 15일 오전 11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김이곤

'시, 음악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설레는 만남과 뜨거운 사랑, 서글픈 이별에 이르는 인생의 대서사시를 감성 어린 음악으로 선보인다.

공연은 '고향의 봄', '봄날은 간다'로 시작해 봄의 파릇파릇함을 상징하는 노래 '알고 싶어요', '동심초'로 이어진다. 유년기의 봄을 지나 청년기의 여름을 상징하는 '사랑이야', '그대 있음에'가 연주되며 가을의 장년기에는 '얼굴', '세월이 가면'을 들려준다. 노년기의 겨울에는 '이별의 노래'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흐르고, 에필로그는 '내 영혼 바람 되어'와 '열애'가 장식한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해설과 재치 있는 입담을 들려주는 콘서트 가이드 김이곤이 진행을 맡으며 장수민(바이올린), 구희령(첼로), 조영훈(피아노)으로 구성된 '아즈양 상블'이 연주를 들려준다.

공연 후 회관 카페에서 커피와 마핀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5.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연주회

1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구재향)가 51번째 정기연주회를 진행한다. 1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송지영

매년 다양한 주제로 연주회를 진행해온 회원들은 이번 연주회 주제를 '프랑스 음악여행'으로 잡고 드뷔시 서거 100주년을 맞아 그의 대표적 작품과 함께 프랑스 작곡가의 작품으로 레퍼토리를 짰다. 이번 공연에서는 송지영(광주교대 출강)씨가 드뷔시의 '서풍이 분 것', '아마 빛 머리의 소녀', '피자 라빈 장군', '불꽃' 등을 준비했다. 이슬(광주예술고 출강)씨는 장 필립 라모의 '야만인', '물벼룩', '회오리바람', '부드러운 불꽃', '라플레트'를 무대에 올린다. 이근영(전남예고 출강)씨는 드뷔시의 '라모를 찬양하며', '낭만적 왈츠'를 들려준다. 김형미(광주대 출강)씨는 모리시 라벨의 '물의 유희',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박미성(전남대 강사)씨가 드뷔시의 '판화' 중 '탐', '그러나나의 황혼', '비 오는 정원'으로 마무리한다.

지난 1990년 창단된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지역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됐다. 창립 연주회 이후 지금까지 바로크 음악, 슈베르트 이전 낭만 작품, 향토작곡가 작품 연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공연을 이어왔다. 전석 1만 원. (학생 50% 할인) 문의 010-6331-683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료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 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 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 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